

국 내

光州日報 선정 2007년 국내·국제 10대 뉴스

국 제

2007년 정해년 한해도 감동과 영광, 좌절과 실패, 그리고 희망 속에 지나가고 있다. 국민은 올해의 절망과 슬픔, 또 끝나지 않는 갈등이 곧 해결되고 내년에는 좀 더 나은 한해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올 대한민국과 지구촌을 달렸던 국내 10대 뉴스와 국제 10대 뉴스를 통해 격변의 2007년을 돌아본다.



이명박 제17대 대통령 당선

12월 19일 실시된 역사적인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됐다. 이 당선자는 총투표수 2천373만2천854표 가운데 1천149만2천389표를 획득, 48.7%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 당선자는 내년 2월25일부터 5년간 대한민국의 주인이 될 예정이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 2007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됐다. 지난 2000년 6월 국민의 정부 시절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7년 만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0월3일 평양 백화원 초대소에서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남북정상선언을 합의문으로 채택했다.



국제유가 천정부지

국제유가 급등은 서브프라임 사태와 함께 글로벌 경제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국제유가는 100달러 시대에 바짝 다가갔다. 지난달 23일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 텍사스 중질유(WTI)는 배럴당 98.18달러로 증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계속 뜨거워지는 지구

지구온난화는 올해 지구촌을 가장 뜨겁게 달군 화두였다. 올해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교토의정서 채택 10주년이 되는 해인데다 연초부터 유엔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IPCC)의 지구온난화 보고서 발표로 환경 문제가 세계적 이슈로 떠올랐다.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사고

12월 7일 오전 7시경 충남 태안군 만리포 북서방 5마일 해상에서 풍랑을 만난 삼성중공업 소속 해상크레인인 정박해 있던 흥광선적 14만6천t급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충돌, 원유 1만2천547k(1995년 셰프린스호 사고때의 2.5배)가 바다로 유출됐다.

북핵 6자회담 이행 합의

제5차 6자회담 3단계회의에서 2·13합의가 채택됐다. 북한 핵시설 폐쇄와 불능화를 시계열적으로 나누고 이에 상응해서 중유로 환산해 100만t에 달하는 에너지를 지원하고 5개 실무그룹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골자였다. 북한은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가 해결된 뒤 핵시설 가동을 중단시켰다.



버지니아텍 총기 난사

한국인 출신 미국 버지니아공대생 조승희(23)씨가 지난 4월 캠퍼스 안에서 총기를 난사, 교수 학생 등 32명을 죽임으로 몰아넣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버지니아주 조사위는 보고서에서 조씨가 캠퍼스에서 정신적 불안정의 징후를 보였음에도 대학이 적절히 개입하지 않아 피해가 컸음을 지적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 담보대출) 부실 사태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했다. 미국과 유럽의 대형 투자은행들은 수십억달러의 손실을 기록했고 국제 금융시장은 급격히 얼어붙었다.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달러화 약세로 국제금융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아프간 탈레반 한국인 납치

7월 19일 단기 선교 활동을 위해 아프간을 방문 중이던 분당 샘물교회 교인 23명이 탈레반에 납치됐다. '탈레반 수감자-인질 맞교환'을 요구했던 탈레반은 우리 정부를 압박하다 7월 25일 배영규 목사, 7월 31일 심성민씨를 각각 살해, 한국인들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다.

코스피지수 2,000 돌파

코스피지수는 7월 25일 무디스의 국가 신용등급 상향조정 호재로 2,004.22로 거래를 마쳤다. 사상 처음 증가 기준 지수 2,000을 돌파한 것이다. 이는 우리 증시가 기업체질 개선, 간접투자문화 확산 등에 힘입어 선진시장에 한발짝 다가섰음을 나타내는 신호탄이었다.



미얀마·파키스탄 민주화 시위

철골통치 하에 있는 미얀마와 파키스탄에서는 어느 해보다 민주화 열기가 뜨거웠다. 유가인상으로 촉발된 미얀마 민주화 시위는 승려들이 시위를 주도하면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확산됐다. 미얀마 시위는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민주화를 향한 미얀마인들의 열망은 군정의 유혈진압으로 좌절됐다.

윤곽 드러낸 中 차세대 지도자

시진핑(54) 중국 상하이시 당서기는 10월 열린 제17대 전국대표 대회에서 서열 6위의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출되며 후진타오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뒤를 이을 차세대 지도자로 급부상했다. 리커창(52) 라오닝성 당서기 역시 서열 7위의 상무위원직을 차지하면서 후계자 경쟁에 뛰어들었다.



신정아 가짜 학위 파문

7월 유명 유튜버로 '미숙계 신데렐라'라는 별명이 붙었던 신정아(35) 동국대 조교수 겸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의 대학 학위 가짜 모두 가짜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우리 사회에 학력·경력 검증 열풍이 불고 무분별한 학벌중시 풍토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한화 김승연 회장 보복폭행

한화그룹 김승연(55) 회장이 아들이 술집에서 사비가 붙어 다쳐서 3월 8일 경호원과 조직폭력배 등을 동원해 가해자들을 보복 폭행했다. 김 회장은 아들을 때린 북한동 S클럽 종업원들을 쇠파이프와 전기충격기 등으로 폭행한 사실이 밝혀져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푸틴과 함께 부활한 러시아

7년간 6.5% 이상 경제성장을 이룬 러시아의 환보유고 세계 3위, 세계 10위 경제대국의 지위를 확고히 한 러시아 부흥의 주역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다. 퇴임이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국내 지지도는 80%를 오르내리며 최근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로도 뽑혔다.

중남미 지도자 장기집권 기도

중남미 좌파 지도자들은 권력기반 강화의 의지를 노골화했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은 대통령 연임제한 철폐와 임기연장 등 권력 강화 의도를 본격적으로 드러냈으며,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과 라파엘 코레아 에콰도르 대통령 역시 연임제한 철폐 개헌안 통과 등 집권강화 행보에 동참했다.



한·미 FTA 협상 타결

2006년 2월 출범을 선언한 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타결돼 6월 30일 합의문에 서명했다. 협상 타결로 34만개의 일자리 창출, 국내총생산 6.0% 증가,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시장 선점 기반 마련, 성장잠재력 제고 기반 마련 등 경제적 효과와 미국과의 유대 강화라는 부수적 성과를 얻게 됐다.

삼성 비자금 특검법 발효

삼성그룹 법무팀장 출신인 김용철 변호사가 10월 29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의 비자금 의혹을 폭로했다. 삼성 비자금 의혹과 관련한 각종 사건을 수사할 특검법은 11월 29일 국회를 통과해 12월 10일 공포와 함께 발효됐다.



중국산 불량식품·장난감 파동

올해 초 팻푸드(애완동물 사료) 리콜로 시작된 중국산 불량식품·불량장난감 파동으로 중국 제품의 안전성 문제가 국제적 문제로 떠올랐다. 미국과 중국간 무역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터져나온 중국 제품의 안전성 시비는 통상마찰로까지 확대됐다.

반세기만에 탄력받은 EU 통합

유럽연합(EU)은 12월 13일 리스본조약의 서명절차를 마무리하며 정치통합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27개 회원국을 이루르는 세계 최대 단일시장, 5억명에 달하는 인구와 지난해말 기준 국내총생산 규모에서 미국(12조9천억달러)을 앞지르는 9천억유로(15조9천억달러) 달성이 EU의 현주소다.

공인중개사 / 주택관리사

개강 1월 2일

- 현대적 학습시설
- 과학적 평가 시스템
- 철저한 학습보조 시스템
- 향업 및 취업 센터 운영

전남고시학원 236-2467

농산물 품질관리사

개강 12월 22일

- 실습으로 인한 실기대비
- 모의고사 실시
- 필답형 완전정복
- 향업 및 취업 센터 운영

전남고시학원 236-2467

日食 미도 확장개업

조용한 분위기, 편안한 크라운에 있어 감사드립니다. 개업15주년을 맞이하여 일식 미도가 새로운 풍미를 더해 선보입니다. 5억명에 달하는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터져나온 중국 제품의 안전성 시비는 통상마찰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승반모임, 가족·집대모임은 일식미도에서

●단체 20석, 50석 가능 ●동시주차 60대 가능

T. 02-234-0001, 228-0106